우리 모두를 위한 작은 소개[1)]

이 준 석[2)]
건국대학교 생명과학과

지금은 자연형하천이자 도심에서 주민들에게 사랑받은 삶의 공간으로 거듭난 양재천은 제가 어린 아이였을 때엔 조금 터부시되는 곳처럼 여겨지던 때도 있었습니다. 주변 환경이 지저분했고 사람들의 접근이 용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점차 사람들의 관심거리에서 멀어져 갔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다보니 각종 괴담이나 학생폭력 등의 소문이 흉흉하며 주민들의 시선에서 멀어져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양재천 자연형 하천 공사 이후로 접근하는 경로가 다양해지고 수질에도 신경을 쓰면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고 비가 오는 밤에도 우산을 쓰고 제방에서 산책하는 사람을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사람들이 하천과 가까워지자 하천의 환경에 관심이 많아지고 오염이나 물고기죽음과 같은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기 시작하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피하고 싶던 자연이 사람들의 관심대상이 되자 내가 살아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생기고, 그곳을 지키고자하는 마음이 생겨난 것이라 생각됩니다. 양재천 주변에서 거의 30년을 살아온 주민 입장에서는 매우 반갑고 놀라운 변화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자생식물을 보호하는 것도 이와 같다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특히 동식물을 가꾸거나 길러보는 등의 경험을 해보지 않은 분들은 그만큼 자연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연을 가꾸고 보호하는데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과의 직접 경험이 부족한 분들께는 개별적이고도 개인적인 자연과의 경험을 갖게 함으로서 보다 가깝게 자연을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줌으로써 잠재적으로 향후 자연을 보호하고 보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잠재적인 자연보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조언을 주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언자 혹은 조력자가 필요한데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이미 그러한 자격을 갖고 계시리라 감히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자연에 대한 경험을 갖게 해주는 많은 방법 중에서 작지만 소박하게 그리고 항상 친밀하게 자연과 접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인 우리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식물을 길러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주변에 식물에 관심이 있으시지만 의외로 한번도 식물을 길러보지 못했다거나 자신이 기르면 항상 식물이 죽는다며 식물을

1)The First Step of Planting for the Earth and Our Life
2)YI, Joon Seok, Dept. of Biological Siences, Konkuk University, Kerea, E-mail: yadniar@hanmail.net

기르고 싶어는 하지만 두려움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잠재적인 자연보호자로 발탁이 되면 좋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그분들이 지금부터 만들어가는 경험 하나 하나가 향후 자연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결정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동식물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좋지만 작더라도 긍정적인 인식 자체를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식물에 대한 경험이 없으신 분들께 식물의 생리에 대해서 특히 수분과 빛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것도 좋지만 빈번히는 아니더라도 때때로 도움이나 조언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먼저 우리 곁의 식물들을 추천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산포나 종자확보가 용이한 종이라면 더욱 좋겠지요. 먼저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보기가 어렵지 않으면서도 기르기도 쉬운 종이 좋을 것입니다. 화분과 흙을 구하기 전에 먼저 구하기도 기르기도 어렵지 않거나 조금 신경을 써줘야 해도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는 식물들은 어떤 것이 있을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1. 참나리 *Lilium lancifolium*

참나리는 영명으로는 Tiger lily라고 불리우며 계통상으로는 속씨식물-단자엽식물(외떡잎식물)-백합목-백합과-백합속에 속하는 다년생(여러해살이) 초본(풀)입니다. 참나리는 가정에 도입되기에 좋은 여건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첫 번 째로 우리나라 전역에서 서식하고 있으며, 생육환경도 특별히 가리지 않고 잘 자란다는 점에 있습니다. 참나리는 중북부에서 남부까지 많은 곳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특히 하천제방부나 산림절토지에서도 발견되는 등 상대적으로 생존해있는 개체를 발견하기가 손쉽습니다. 두 번째로 참나리는 꽃이 크고 아름다우며 오랜 시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참나리는 첫 개화를 시작했을 때는 단지 한 개의 작은 꽃을 피우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점차 많은 수의 보다 큰 꽃을 피워나가기 때문에 애정을 갖고 기르면 여름에 붉은색 호피무늬로 물든 아름다운 꽃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무엇보다 번식이 아주 용이하다는 점에서 참나리가 가정이나 화단에서 기르기 쉬운 종으로 생각됩니다. 참나리의 번식이 용이한 점은 많은 백합속 식물들이 땅속에 있는 비늘줄기를 따로 분리해서 심어서도 기르지만 참나리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자생 백합과 식물 중에 유일하게 주아(살눈)라고 불리우는 다육화된 둥근 구슬같이 생긴 검은 눈(싹)이 잎겨드랑이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 주아는 꽃이 다 지기 전에 크게 성숙해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떨어진 주아는 바로 뿌리가 내리고 싹이 터서 개체로 성장합니다. 즉 무성생식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나리의 나이와 환경에 따라서 다르지만 잘 자란 참나리 한 줄기에서도 상당한 수의 주아를 얻을 수 있어 많은 사람에게 전파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생성이 일정하게 잘 되는 편은 아니지만 종자는 가을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비늘줄기를 분리하는 것처럼 침습적인 방법을 쓰지 않아도 한해에 두 번의 전파기회가 있어서 좋습니다. 이러한 참나리의 장점은 한 개체를 효과적으로 화분에서 계속 기를 경우 몇 년이 지나면 화분에 참나리로 가득차게 되어서 해가 지날수록 점점 탐스러워지는 꽃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내한성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베란다에서 화분으로 지내도 얼어죽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마당에 직접 심을 경우엔 더 크고 많은 꽃을 볼 수 있습니다.

참나리를 얻을때 가장 좋은 방법은 주변에서 참나리를 기르고 있다면 몇 년 자란 참

참나리의 꽃

참나리의 주아

나리의 비늘줄기덩이를 분양해주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을때는 사진이나 실물을 통해서 참나리의 꽃을 보여주고 한여름까지 확보가 가능한 주아를 분양해주는 방법도 좋을 것입니다. 종자, 비늘줄기조각, 주아를 통해서 꽃을 보기위해서는 3~4년 정도 후에 개화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돌나물과 식물들 Crassulaceae family

속씨식물-진정쌍자엽식물군-중심진정쌍자엽식물군-범의귀목-돌나물과에 속하는 식물들은 흔히 다육식물이라고 불리우는 통통한 잎과 줄기를 갖는 식물들입니다. 이 과에 속하는 많은 식물들이 원예종으로 개발되어 있어서 흔히는 세덤이라는 이름으로 꽃집 등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육식물들은 그 아기자기한 모습 때문에 인기가 많습니다만 의외로 우리 주변에 흔하다는 점이 우선되는 장점입니다. 물가, 약수터, 바위위, 계곡 등지에서 돌나물과 식물들이 발견됩니다. 이렇게 흔하게 발견되는 것은 이 식물들이 환경에 견디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며 빛만 확보가 된다면 수분의 부족에서도 다른 식물보다 잘 견디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수분 부족에 잘 견디는 이들의 이러한 생리적인 특성은 재배자의 경험부족에 의한 식물의 폐사율을 낮춰줄 수 있는 장점이 됩니다. 또한 수분이 과도한 경우에는 절간이 길어지는 형태적인 변형을 보이기 때문에 재배자의 경험미숙이 가져오는 효과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으면서 식물체를 잃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돌나물과 기린초류는 노란색, 꿩의비름 종류는 붉은색, 바위솔 종류는 주로 흰색이나 붉은색 계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종이나 기호에 따라서 기르는 식물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돌나물과 식물의 대부분은 포기를 나누거나 줄기나 잎을 잘라서 꺾

기린초

꿩의비름

돌나물

바위솔

꽃이를 하기도 용이하기 때문에 비록 종자만 채취하는 것에 비해서는 침습적인 방법이지만 이미 기르는 사람이 있다면 손쉽게 분양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종자는 돌나물의 경우에는 장마가 지난 늦여름에, 기린초와 꿩의비름, 바위솔

등은 가을에 종자를 채취해서 심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돌나물과 식물은 국내에서 식용이나 약용으로 사용되며 돌이나 기와에 붙어서도 자라기 때문에 다른 식물에 비해서 실내감상과 인테리어적인 측면으로 활용가치가 있으며 앞서 이야기했듯이 수분부족에서도 잘 견디는 이러한 특징은 사무실과 같은 조건에서도 석부작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작살나무 *Callicarpa japonica*

작살나무는 속씨식물-진정쌍자엽식물군-국화군-꿀풀목-마편초과에 속하는 다년생(여러해살이) 관목입니다. 나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소개된 식물들보다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꽃이 화려하거나 크지 않지만 장마가 지난 무더운 여름에 개화를 하며 가을에 자주 빛의 열매가 맺혀 꽃과 열매를 감상하기가 좋은 식물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주변의 숲속에서 작살나무 *Callicarpa japonica*와 좀작살나무 *Callicarpa dichotoma*를 숲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숲이 접한 지역이 있다면 하천 제방이나 계곡에서도 발견이 되며 열매가 아름답기 때문에 가을에 단풍과 더불어 감상가치가 높은 식물이며 도심지에서도 잘 적응하기 때문에 기르기 좋은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추위에 견디는 능력도 좋고 어느 정도 그늘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재배조건을 많이 가리지 않는터라 기르기가 용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해 두해 길러가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날을 기다리는 재미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나무이기 때문에 꽃과 열매를 보기위해서는 조금 더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기다림만큼 씨앗부터 기른 후에 맞이하는 꽃과 열매에 대한 보상도 크겠지만 기다림이 어려울 경우에는 작살나무류의 경우에 꽃시장이나 묘목시장에서 구하기가 쉬우므로 이를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좀작살나무 꽃

좀작살나무 열매

4. 장미속 식물들 *Rosa Genus*

이제부터 소개될 식물은 장미속에 속해있는 들장미라고도 불리는 찔레꽃 *Rosa multiflora* var. *multiflora*과 해당화 *Rosa rugosa* var. *rugosa*입니다. 이들은 과거부터 생울타리나 정원수로 높은 가치를 지녔지만 특히 해당화의 경우에는 그 가시가 매우 조밀하고 매섭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단점이 있습니다. 더욱이 찔레꽃은 흔하게 발견할 수 있으나 해당화는 주로 바닷가 근처나 산기슭에서 볼 수 있지만 자연상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지만 그 활용가치 때문에 꽃시장 등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관리상의 불편함과 경우에 따라서 발견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식물들을 내세운 이유는 화려한 꽃과 상큼한 향기 때문입니다.

5~6월 사이에 아름다운 꽃과 향기를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종의 특징입니다. 찔레꽃은 호수나 강가 근처에, 해당화는 바닷가 근처에서 발견되고 일반적인 번식법으로는 삽목(꺾꽂이)을 이용하지만 특히 해당화의 경우에는 자연 생육지의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로 꽃시장에서 묘목을 구입하거나 만약에 종자를 채취할 수 있다면 과육을 제거한 후에 토양에 심고 겨울을 넘기면 이듬해 발아를 시켜 기르는 것이 좋겠다. 다소 관리법이 까다롭고 번식과 전파에 다소 정성과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지만 앞서 소개해드린 식물과는 다른 독특한 매력을 지닌 식물임에 틀림 없습니다. 더불어 앞서 말씀드린 작살나무와 함께 2미터 정도로 크게 자랄 수 있는 나무종류이기 때문에 작은 크기일때부터 화분에서 주의깊게 기를 경우에 분재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연을 보호하고 보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연에 보다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자연과 사람이 가까워져야 함을 앞서 양재천의 예를 들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자연의 일부를 가정이나 사무실로 삶의 일부로 더욱 가깝게 들여 놓았을 때 우리의 자연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인식하고 더욱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관심의 과정에서 무리한 개인적인 욕심으로 자연을 훼손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을 소개해주고 관심을 일깨워줄 수 있는 조언자가 있다면 보다 긍정적으로 환경과 자연을 보호하고 보전할 수 있는 현시대를 살아가는 보호자를 육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그것을 위해 최대한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면서도 다소 특이

찔레꽃

해당화

하거나 관상가치가 있으면서도 구하기 쉽거나 기르기 쉬운 식물들을 몇 가지 예로 들어보았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대부분의 분들께서는 이미 자연을 소개해 주실만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처한 환경에서 이 글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보다 손쉽게 전파할 수 있으면서도 자연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식물들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일례로 우리 주변에서 보기 쉬운 단풍나무는 헬리콥터처럼 날아가는 종자를 주워오면 발아도 쉽게 되고 분재로 아기자기한 멋을 낼 수 도 있으며, 쑥쑥 크는 나무가 키워보고 싶으시다면 오리나무를 길러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간다면 길가의 코스모스나 지칭개, 민들레, 씀바귀 등을 심어볼 수도 있겠지요. 전문가에 의한 전문적인 연구와 보호도 중요하지만 일반시민에게 있어 자연은 그저 풍경정도로만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과 신기하고 소중한 삶의 공간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이러한 개인적인 경험들이 모여서 자연을 보호하고자 하는 커다란 인식의 전환과 사회분위기 조성에 이바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말에 시간이 되신다면 조언자 혹은 조력자로서 생각하고 계신 식물을 추천해주시거나 선물해 주시는건 어떨까요?